

太祖開國入朝仕至翰林院大學士平章事  
諱文英金大問本新羅貴門子弟聖德王三年  
為漢山州都督作傳記若干卷其高僧傳花  
世記樂本錢山記猶存朴仁範元傑巨仁金  
卿金垂訓輩雖僅有文字傳者而史失行事  
得立傳

三國史記卷第四

三國史記卷第四

宣撰

列傳第七

# 삼국통일의 의미와 재해석

삼국통일과 '삼한일통' 의식에 대하여

時建福二十七年庚午五月平大王選為  
縣令明年辛未冬十月百濟大發兵來攻都  
城一百餘日真平王命將以上州下州新州  
兵救之遂往與百濟入戰不克引還讚德

# 일반적으로 알려진 삼국통일의 과정

- 642년 백제의 신라침공(대야성 전투)
- 신라의 친당 정책 및 나당 연합군 결성
- 660년 나당 연합군에 의해 백제 멸망
- 고구려의 집권층 분열
- 668년 나당 연합군에 의해 고구려 멸망



# 1. 신라의 삼국통일

## 긍정론

: 불완전하게 분열되어 있던 국가를 통일. 한반도 최초의 통일국가.

## 부정론

: 영토통합에서 고구려의 미포함. 발해와 신라로 구축된 남북국 형세. 백제통합전쟁론

## 북한학계

: 신라보다는 발해를 중심으로 역사서술.



## 2. '一統三韓'은 언제부터였나? : 신라의 삼국통일론

**'일통삼한 一統三韓' 혹은 '삼한일통 三韓一統'**

“지금 삼한이 한 집안이 되고 백성들이 두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니 비록 태평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으나, 조금 안정되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 권43, 열전3, 김유신**

“선왕 춘추는 자못 어진 덕이 있었고, 더욱이 생전에 훌륭한 신하 김유신을 얻어 한 마음으로 다스려 삼한을 통일하였으니, 그 공적이 적다고 할 수 없다.”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 8, 신문왕 12년.**

신라왕이 글을 올려 말하였다.

“신라가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거룩한 신하 김유신을 얻어 삼국을 통일하였기 때문에 '태종'이라고 한 것입니다.” **삼국유사, 권1, 기이1, 태종춘추공.**

“탑을 세운 뒤에 천지가 태평하고 삼한이 통일되었으니, 어찌 탑의 영험함이 아니겠는가?”

**삼국유사, 권3, 탑상, 황룡사구층탑.**



9층	예맥	濊貊
8층	여적	女狄
7층	단국	丹國
6층	말갈	靺鞨
5층	응유	鷹遊
4층	탁라	托羅
3층	오월	吳越
2층	중화	中華
1층	일본	日本



## 2. '一統三韓'은 언제부터였나? : 신라의 삼국통일론

**'일통삼한 一統三韓' 혹은 '삼한일통 三韓一統'**

“지금 삼한이 한 집안이 되고 백성들이 두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니 비록 태평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으나, 조금 안정되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 권43, 열전3, 김유신**

“선왕 춘추는 자못 어진 덕이 있었고, 더욱이 생전에 훌륭한 신하 김유신을 얻어 한 마음으로 다스려 삼한을 통일하였으니, 그 공적이 적다고 할 수 없다.”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 8, 신문왕 12년.**

신라왕이 글을 올려 말하였다.

“신라가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거룩한 신하 김유신을 얻어 삼국을 통일하였기 때문에 '태종'이라고 한 것입니다.” **삼국유사, 권1, 기이1, 태종춘추공.**

“탑을 세운 뒤에 천지가 태평하고 삼한이 통일되었으니, 어찌 탑의 영험함이 아니겠는가?”

**삼국유사, 권3, 탑상, 황룡사구층탑.**





### 3. 삼국통일이 아니라 백제 합병이다? : 백제통합전쟁론

신라의 목적은 삼국의 통일이 아니라 백제 공격이었다.

신라의 삼한 '일통'이 아니라 백제 '통합'이다.

삼국통일전쟁이 아니라 백제통합전쟁





삼한일통설, 백제통합설 모두 전쟁의  
시작과 과정, 결과를 모두 아울러 생각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적 정세까지 함께 고민해야 가장  
알맞은 이론을 정립할 수 있을 것.





太祖開國入朝仕至翰林院大學士平章  
諸文英全大問本新羅貴門子弟聖德王三年  
為漢山州都督作傳記若干卷其高僧傳花  
世記樂本續山記猶存朴仁範元條巨仁金而  
鄉金燕訓董雖僅有文字傳者而史失行事  
得立傳

三國史記卷第四十六

三國史記卷第四十七

宣撰

列傳第七

# 통일신라와 발해, 그리고 남북국시대

역사용어를 정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기



# 1. 통일신라와 발해, 그리고 남북국시대

백제(660)와 고구려가(668) 멸망. 혼란을 수습하고 **통일신라시대**가 시작.

고구려 멸망 30년 후, 698년에 고구려 지역에 고구려 계승을 표방한 **발해 등장**.

발해는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으로 이루어진 세력으로 구성.

**통일신라와 발해의 공존양상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

**통일신라와 발해? 아니면 남북국시대?**



## 2. 조선시대 학자들의 발해에 대한 생각

### 한백겸: 동국지리지

신라가 당나라의 힘으로 통일을 이룬 것에 만족하면서 안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고구려의 영토는 얻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 이러한 신라의 통일이 한반도가 외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침략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한 원인이라고 지적

### 안정복: 동사강목

신라의 삼국통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발해사도 함께 서술하였다.

### 유득공: 발해고

신라보다는 고구려와 발해에 주목.

고구려가 멸망한 후 고구려 유민에 의해 발해가 세워졌던 그 당시의 상황을 남북국이라고 불렀다.

### 김정호: 대동지지

신라는 삼국을 통합했을 뿐이고 삼국을 통합한 신라가 발해와 남북국의 형세를 이루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통합이 아닌 통일을 이룬 것은 신라가 아니라 고려라고 서술했다.



### 3. 통일신라와 발해: 전쟁이 있었는가?

#### -발해와 당나라, 신라

발해 대무예의 동생 대문예의 당나라 망명.

733년 당나라는 대문예를 보내서 발해를 공격.

신라의 발해 남쪽지역 공격 계획. 신라에 대한 당나라의 발해 공격 독려.

#### -일본학계의 의견

753년 신라에 파견되었던 일본사신 小野田守가 신라측으로부터 접견을 거부당했는데,

5년 후에 그가 다시 발해에 사신으로 파견되었을 때 신라 침공 계획을 논의.

이 의견은 추측을 통해 가능성을 제시한 것.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





## 4. 통일신라와 발해: 빈공과에서의 경쟁

1) 발해와 통일신라는 전쟁보다는 경쟁이 두드러졌다.

신라는 하대의 혼란기에 접어들었고 발해는 해동성국이라 불리는 전성기를 구가  
**:신라는 현실적인 국력이 높아진 발해를 경계.**

2) 빈공과 결과에 대한 경쟁 : 최치원의 기록

872년, 발해 유학생인 오소도(烏昭度)가 신라 유학생인 이동(李同)을 제치고 상위를 차지.  
신라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치욕적으로 생각했다.

**“이미 사방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길이 한 나라의 수치가 되었다.” (동문선, 권47)**

874년 최치원 자신이 급제한 일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말한다.

**“실로 공정함을 만나서 예전의 수치를 씻었다.” (동문선, 권48)**



## 5. 통일신라와 발해: 사신 서열 경쟁

897년, 발해의 왕자 대봉예(大封裔)가 신라 사신보다 윗자리에 앉겠다고 당나라에 요구했다. 그러자 당나라에서는 이를 거절했다.

“나라의 선후는 본래 강약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니,  
조정에서의 지위를 지금 어찌 성쇠를 근거로 바꿀 수 있겠는가.  
마땅히 과거의 관례에 따를 것이다.” (동문선. 권33)

신라는 발해에 밀리는 것을 실감했을 것.  
그렇기 때문에 기록으로는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해서 발해를 공격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두드러지게 남기려고 했던 것.



## 6. 통일신라와 발해: 교류 가능성

**발해는 주요 교통로 가운데 하나로 신라도를 두었다.**

:당나라와의 조공도, 거란과의 거란도, 일본과의 일본도, 신라와의 신라도를 두었음.

**신라도에는 신라 국경도시부터 발해 책성부까지 39개의 역이 설치**

신라와 발해가 대립관계만을 유지했던 것이라면 굳이 역로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었을 것



## 7. 통일신라와 발해인가? 남북국인가?

### 통일신라와 발해

:발해가 고구려 유민은 물론 말갈족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종족적 이질요소를 인정하고 그 고유의 문화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발해와 통일신라라고 불러야 한다.  
일본학자들은 발해와 신라는 교섭이 없었고 오히려 일본을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했다고 주장.

### 남북국시대

:발해와 신라가 교류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 주목해야 하고,  
발해사를 만주역사로 보려는 의견에 반대하고 발해사를 한국사에 적극적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의미로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선호.

역사용어는 정치적인, 외교적인 문제까지 모두 내포하고 정해지고, 변경된다.  
사실은 하나이지만 시각은 여럿인 것.





又英入金大問本新羅貴門子弟聖德王三年  
漢山州都督作傳記若干卷其高僧傳花郎  
樂本漢山記猶存朴仁範元條仁金雲  
金雲訓置雖僅有文字傳者而史失行事不  
立傳

國史記卷第四十六

國史記卷第四十七

撰

傳第七

論年累人也其父讚德有勇  
建福二十七年庚午真平大  
令明年辛未冬十月百濟大  
一百餘日真平王命將以上  
下州新之

# 백제의 마지막 공주: 태비 부여씨의 삶

나라를 잃은 백제의 유민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 1. 660년 백제의 멸망, 그후-

의자왕, 태자 융, 왕자 태, 대신 정복이 여러 성들과 함께 모두 항복하였다.

소정방은 왕 의자, 태자 융, 왕자 태, 왕자 연,

대신, 장사 88명과 백성 12,807명을 당나라 수도로 보냈다.

『삼국유사』 권1 기이1 태종춘추공

의자왕은 낙양에 이른지 수일 만에 병사하였고,

패망한 군주들인 오(吳)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손호(孫皓)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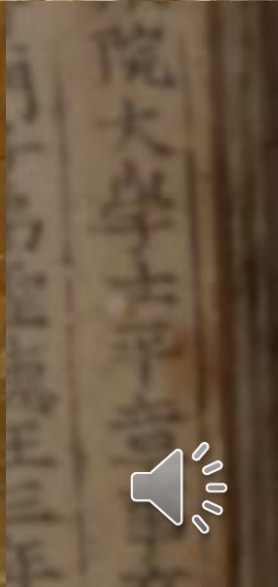
진(陳)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진숙보(陳叔寶)의 무덤 곁에 묻혔다고 한다.

『구당서』 권199 상 '백제국'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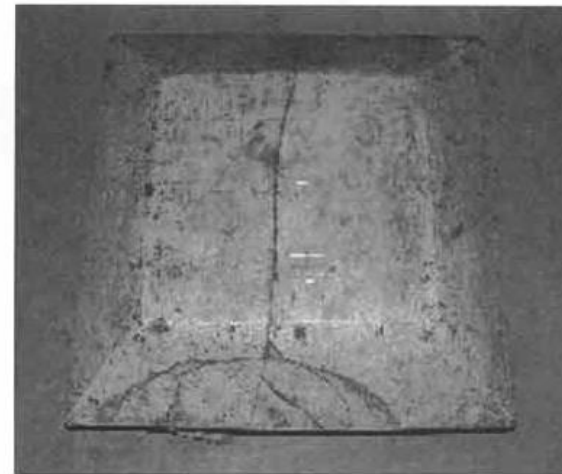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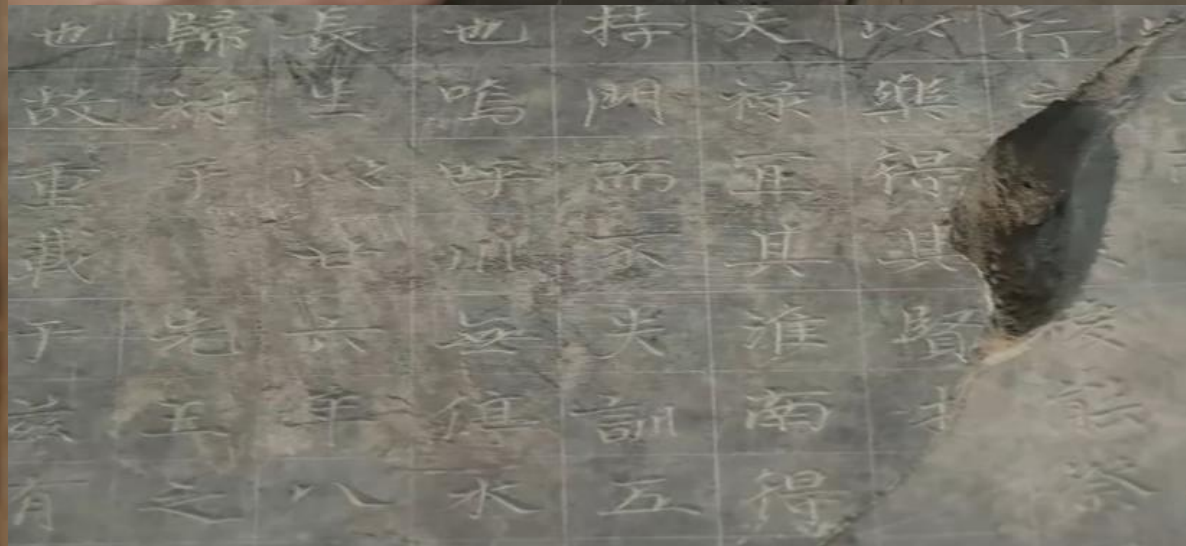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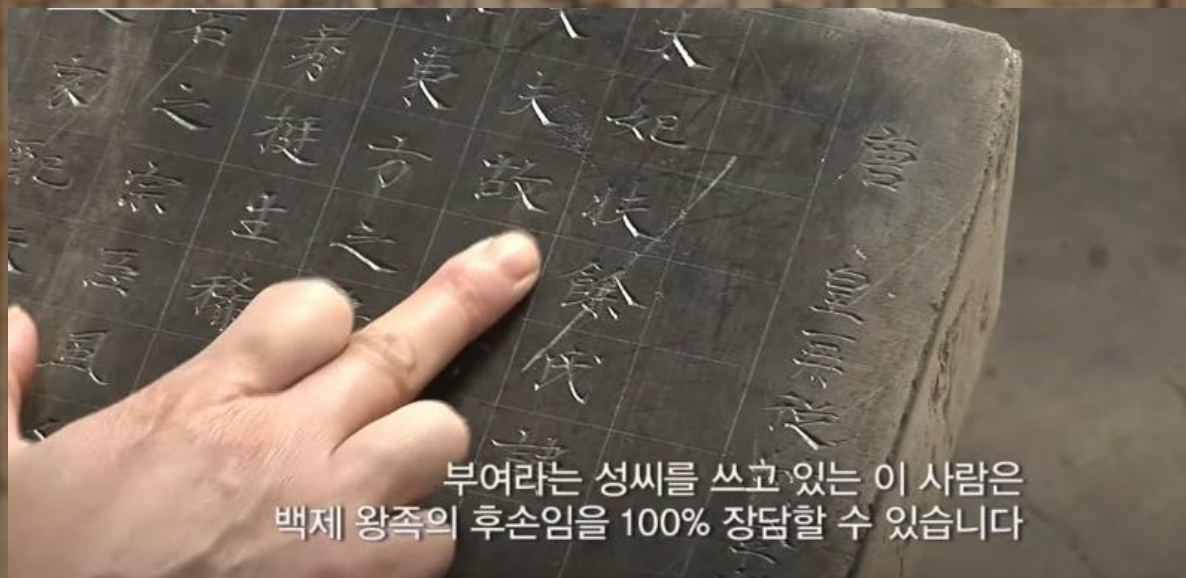
# 궐왕 이용과 부여태비의 묘 발견

부여태비 고분 발굴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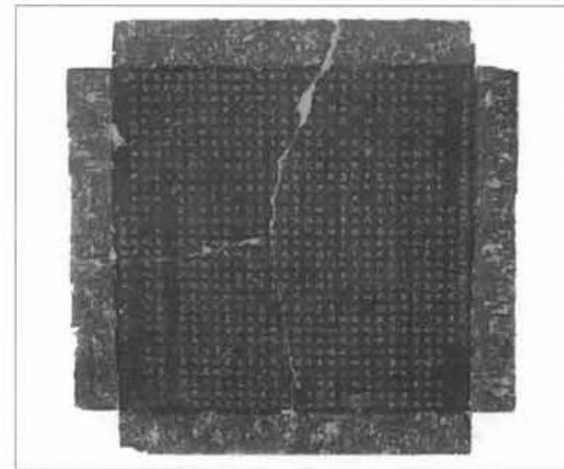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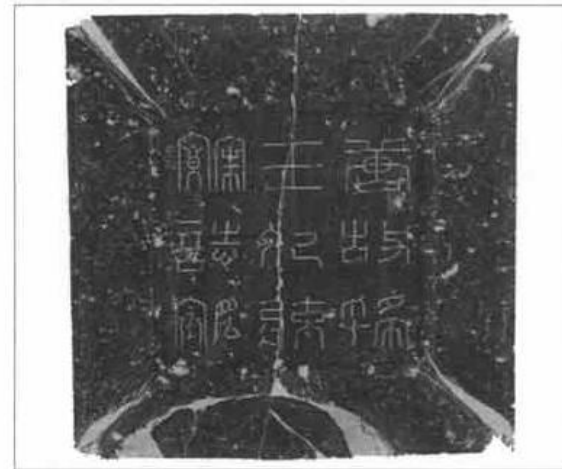




## 2004년도 태비 부여씨의 묘지석 발견



〈그림 5〉 태비 부여씨 묘지석 사진



〈그림 6〉 태비 부여씨 묘지석 탁본





## 2. 곽왕 이용과 태비 부여씨의 묘지

- 묘지명:

죽은 이에 대해 서술한 묘지의 명문.

죽은 사람의 공로, 성품, 외모, 고향 등의 내용을 담아 적은 글

- 태비 부여씨의 묘지석: 977글자 음각

690년에 태어났고, 당나라 곽왕의 왕비였다.

- 태비는 부여씨이고, 대방군왕 의자의 증손녀,  
광록대부 태상경 융의 손녀, 조청대부 부여덕장의 딸.  
: 의자왕으로부터 이어지는 직계 왕실의 자손

- 부여융에게 부여덕장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후손을 두었던 사실 발견



### 3. 690년, 중국 유일 여황제 측천무후의 즉위와 당시의 정국



## 4. 부여태비의 삶

“남국 사람의 얼굴처럼 아름다우니 봄날의 숲과 가을날의 단풍 같았다.”

“아주 좋은 집에 살았는데 아침햇살처럼 조용히 움직여 드러내지 않았으니 세상에 드물게 어진 사람이며 덕이 있어 외롭지 않았고 속마음과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같았다.”

-태비 부여씨의 묘지명

690년 부여덕장의 둘째 딸로 출생. (: 부여융의 손녀, 의자왕의 증손녀)

711년 당 고조의 증손자 이웅의 두 번째 부인으로 혼인. (:이웅은 ‘사(嗣)궐왕’으로 봉해진다.)

718년 ‘궐왕비’에 책봉.

727년 궐왕 이웅 사망.

태비 부여씨가 낳은 장남 이거(李巨)가 궐왕의 자리를 이어받은 4년 뒤 태비로 책봉.

738년 49살로 사망하여 이웅과 합장.





## 5. 측천무후 사망과 당 중종의 복위, 그리고 이웅



**태비 부여씨의 남편, 곽왕 이웅**

측천무후의 사망과 중종의 복위, 그때 이웅은 위황후의 여동생 송국부인과 결혼  
-출세가도를 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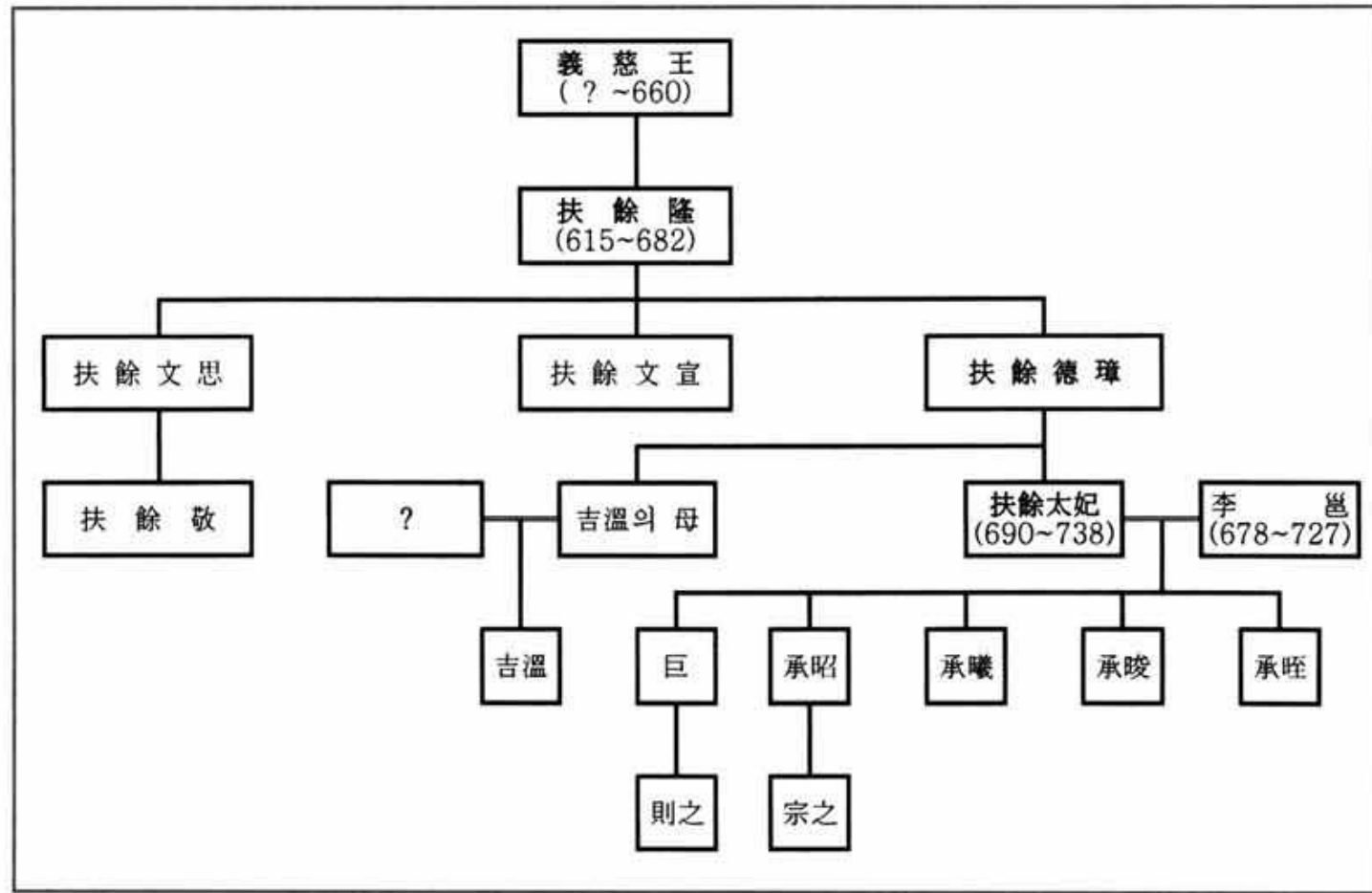
**위황후 세력이 이웅기에 의해 축출**

-이웅은 송국부인의 목을 베어 조정에 바치면서 목숨을 부지한다.





# 부여태비의 묘지석 발굴로 복원한 의자왕 가계도



〈표 1〉 의자왕과 태비 부여씨의 가계도



# 디아스포라, 여러 사람의 삶과 의미

- 660년 이후로 영역을 완전히 잃어버린 백제였지만 그 후손들은 명을 이어가고 있었다.
-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 흑치상지는 백제의 배신자라고 보아야 할까? (첨부한 다큐멘터리 시청 권장)
- 태비 부여씨는 백제 왕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았을까?
- 백제의 성씨를 가지고 외국인으로 다른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